

텔레비전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 <뿌리 깊은 나무>를 중심으로 -

박상완(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¹

1. 들어가며

한국은 지난 세기 수많은 역사적 시련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치유,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동아시아에 국한되어 있던 한류 열풍(korean wave fever)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한국을 더 알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는 학습자간의, 혹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문화권이 달라 다양한 형태의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 교육이 문화 교육과 병행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특히 한국어는 문맥(context)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화용론(pragmatics)적 측면이 강한 언어인 바, 문화와 언어를 동시에 교육하는 데에 적합한 교보재의 선별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교보재로써 영상콘텐츠가 주목을 받는 것은 그래서이다. 영화/텔레비전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는

근본적으로 대중성과 결부되어 있고, 이는 동시대 한국의 다양한 가치 체계가 그 안에 녹아들어 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학습자에게 영상콘텐츠는 한국의 감정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교보재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상콘텐츠는 학습자의 흥미 유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높은 효용성을 지닌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영상콘텐츠는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기제가 된다.

최근 들어 한국과 외국의 여러 연구자들이 텔레비전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 작품이 제한적이고 편의적으로 선별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국의 긍정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 교육의 실효성을 떠나, 한국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폭넓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글에서는 텔레비전 역사드라마를 통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역사드라마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 상상력을 더한 팩션(faction)이다. 때문에 일단 작품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 사실은 그

자체가 과거에 대한 정보이면서 역사적 교훈 또한 담고 있다. 한편 그것은 현재적으로 재해석되면서 지금-여기의 현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한 편의 역사드라마에는 과거와 현재가 한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나라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교육하는 데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2011년 방송된 <뿌리 깊은 나무>는 이러한 교보재로서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15세기 중반 조선의 4대왕 세종 시기를 배경으로 한글의 창제와 반포 과정을 다루고 있다. 한국 고유의 문자인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와 배경을 사실적으로 재현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한국어 초급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교보재가 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재현하고, 문자를 둘러싼 극적 갈등을 통해 21세기 한국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국어 중상급 학습자에게도 의미 있는 문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 혹은 역사적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작가의 단일한 재해석 또는 상상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청자에 의해 능동적으로 해석되고 상상됨으로써 다중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역사의 속성을 견지”하는 역사드라마의 속성을 가장 잘 구현한 <뿌리 깊은 나무>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특성 및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에 그려진 한국의 특성과 전통문화를 극적 갈등과 관련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 현재의 한국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뿌리 깊은 나무>에 나타난 한글의 특성

<뿌리 깊은 나무>가 한국어 교육의 좋은 교보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어의 문자 체계인 한글의 창제 과정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 시기는 그 전후의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적인 요소가 적은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극화된 사례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세종 시기, 그 중에서도 세종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 한글의 창제와 반포 과정을 사실적이면서도 극적으로 재현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극적 재미를 줌과 동시에 한글의 특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훌륭한 교보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한글의 창제 배경과 원리

본래 한국에는 한국어라는 고유의 음성 체계가 있었지만 그것을 표기하는 방법은 중국의 한자뿐이었다. 물론 향찰, 구결, 이두 등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한국어를 적던 차자 표기법이 있기는 했으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자는 수십 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글자를

알아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는 지나치게 어려웠다. 또한 실제 언어생활과 표기 방식의 괴리가 커 실용성이 낮기도 했다. 때문에 세종은 한국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문자를 개발했고, 그것이 한글(훈민정음)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인 口훈민정음口의 창제 이유는 서문에 나타나있는데, 이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말과 글이 서로 맞지 않으니 이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마다 이것을 쉽게 익혀 편히 사용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처럼 한글에는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애민정신이 깃들어있다. 당시에는 일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없어 온갖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세종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게 되었다.

한글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학설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한글에 대한 평가절하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창살의 문양이나 자연 현상을 보고 자모를 만들었다는 주장, 집현전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세종이 독자적으로, 과학적으로 발명했다는 것이 정설로 인정을 받고 있다. 집현전 학자들 중 극히 소수만이 한글 창제에 관여했고, 그것 또한 전체 과정에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왕자와 공주 등 세종의 자식들의 역할이 더 컸고, 그만큼 한글은 사실상 뛰어난 언어학자였던 세종 혼자 힘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은 1443년(세종 25년) 완성되어, 1446년 양력 10월 상순에 반포되었으며, 그래서 현재 한국은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하고 있다. <뿌리 깊은 나무>는 1446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현재 전해지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러한 창제 배경과 더불어 각각의 자모가 만들어진 원리를 밝히고 있다. 해례본은 창제의 원리와 기준, 자모 체계 등을 설명하는 ‘제자해’, 초성을 설명하는 ‘초성해’, 중성을 설명하고 활용법을 제시하는 ‘중성해’, 종성을 설명하는 ‘종성해’, 초성·중성·종성이 결합되어 음절이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합자해’, 단어의 표기 사례를 설명하는 ‘용자례’로 이루어져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글 자모의 창작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ㆁ, ㅌ, ㅍ, ㅎ, ㅇ(여린히을), ㆁ(옛이응), ㆁ(반치음)’ 17자로, 태극 음양과 오행의

원리를 담되 입.입술.혀.이.목구멍 등 발음 기관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다.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상, ‘설음’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형상, ‘순음’ ㄷ은 입의 형상, ‘치음’ ㄸ은 이의 형상, ‘후음’ ㅇ은 목구멍의 형상을 본뜬 오행의 기본 자음이다. 여기에 소리의 세기에 따른 가획이 이루어져 그 외의 자음들이 만들어진다. 현대 한글 체계에서는 ‘ㅎ, ㅅ, ㅆ’가 삭제되었다.

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아래아)’ 11자로, 천(하늘).지(땅).인(사람) 삼재를 상형해 만든 것이다. ‘하늘’은 ., ‘땅’은 ㅡ, ‘사람’은 ㅣ으로, 이것이 기본자가 된다. 기본자가 조합되어 ‘ㅓ, ㅕ, ㅗ, ㅛ, ㅜ, ㅠ’ 초출자가 되고, 여기에 다시 첨가가 되면 ‘ㅑ, ㅛ, ㅜ, ㅠ’ 재출자가 되며, 계속해서 기본자의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모음이 만들어진다. 현재 한글 체계에서는 ‘. (아래아)’가 삭제되었다.

2) 한글의 과학성

자음 14자, 모음 10자의 조합에 따라 한글은 거의 모든 발음을 그대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다. 또한 창작 원리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24자와 그 조합법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간편한 문자이다. 바로 이 과학적 특성이야말로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창제 과정을 통해 이러한 한글의 과학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준다. 먼저 이 작품에는 세종이

구희꾼(동물이나 사물의 소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불러 그 원리를 묻는 장면이 수시로 나온다. 대신들이나 궁녀들은 이를 세종의 놀이로 생각하지만 진짜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보편적인 소리를 찾고, 그때의 발음 기관의 형상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알게 된 음가에 따라 세종은 모든 한자어를 분류한다. 후에 기본 자음이 되는 ‘ㄱ, ㄴ, ㄷ, ㅅ, ㅇ’(아설순치후음)으로 발음되는 단어를 수집하는 것이다.

세종은 소리의 차이에 따라 발음 기관의 형태가 달라지는 데에 착안, 그 형상을 알아내기 위해 인체를 해부하기도 한다. 새로운 문자가 상형문자일 때 백성들이 가장 쉽게 익힐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세종은 몰래 반촌의 백정을 불러 시체 해부를 시키고 참관한다. 백정으로 위장한 정기준은 이러한 세종의 행동을 기행으로만 치부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한글 창제의 원리가 되었음을 알고 경악하게 된다. 단순한 문자라고만 생각했던 한글이 매우 정교한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위해 세종이 누구보다 노력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모음에 담겨 있는 천지인의 원리가 세종과 소이를 통해 직접 설명된다. 하늘을 땅이 받치고 그 위에 사람이 서있는 형상이 중첩되고 반복되면서 마침내 온 우주의 원리가 표현된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성을 담고 있더라도 그것이 백성들의 실생활에서 쓰일 만큼 편리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창제 이후 반포 직전을 배경으로 하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세종이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것도 그 지점이다. 그는 자신의 트라우마로 인해 만들어낸 문자가 과연 자기 혼자만의 지적 유희에 불과한지, 아니면 정말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자가 될지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이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되묻고, 수하들과 제3자 심지어 정기준으로 하여금 이중 삼중으로 한글을 시험하게 만든다. 한 사람이라도 한글을 부정하면 포기할 정도로 세종은 반포 이전에 신중을 기한다.

실제 역사에서도 작품 안에서도 세종은 전형적인 워커홀릭이자 완벽주의자였다. 그의 수많은 치적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졌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렇게 여러 분야의 업적들이 모두 완벽하다는 점이다. 그만큼 세종은 주도면밀하면서도 신중한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작품 안에서 그가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은 반대파들이 유독 큰 걱정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세종이 이론 일들을 봤을 때 문자도 완벽무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세종은 자신이 만든 문자에 대해 설부른 확신을 갖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과학적인 문자이고

쉬운 문자이나 정말로 백성들이 그것을 활용할지는 미지수다. 백성을 위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세종의 마음속에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강채윤의 변화나 정기준과의 토론을 통해 마음의 번민을 이겨낸 세종은 자신이 만든 문자를 당당히 세상에 알리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역사적 사실인 반포대신 유포의 방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밀본에 의해 반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되자 혹시 모를 대비책으로서 세종은 궁녀들을 이용, 암암리에 한글을 백성들에게 유포시킨다. 그런데 이 대비책이었던 유포의 방법이 결국은 한글이 살아남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한글이 과학적이어서 배우기 쉽고 편리한 문자였기 때문이다.

세종을 죽이기 위해 살아왔던 강채윤은 처음에는 그가 만든 문자를 비웃는다. 본래 문맹자여서 죽은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다짐했던 강채윤이기에 왕이 백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강채윤에게 세종의 아들 광평대군은 자모 28자만 알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고, 총명한 자라면 한나절이면 모두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반신반의하던 강채윤은 정말로 반나절 만에 한글을 배우고 그 편리성에 놀라게 된다. 강채윤만이 아니다. 작품 말미에 펼쳐지는

반포식에서의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한글의 편리성을 보여준다. 유포의 임무를 띠고 궁을 나온 궁녀들로부터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부모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한글을 알려줌으로써 불과 며칠 사이에 수많은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삼일이면 자모를 외울 수 있고, 일해주면 문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매우 배우기가 쉽다는 한글의 특성이 다시 한 번 대목이다.

3) 한글의 정치성

한국에서 세종은 언제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1위로 꼽히고,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세종과 그의 시대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태평성대로 인식되고 있다. 물론 세종이 백성의 안락한 삶을 중시하면서 다양한 업적을 쌓은 역사상 가장 유능한 왕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 건국 초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세종 시대가 과연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중국과의 관계다. 한반도에 세워졌던 국가들은 대대로 중국과 긴밀한 관련을 맺어왔다. 때로는 중국과 동등한 관계이기도 했고, 때로는 중국에 의해 지배를 받기도 했다. 중국에서 발원한 성리학 이념으로 세워진 조선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형제의 나라,

혹은 군신의 나라로 존재했다. 속국은 아니나 중국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종이 만든 한글은 중국의 한자를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역사에서는 대신들의 가장 큰 반대 이유가 되었다. 당시에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지배하던 때였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된다는 의미였다. 또한 그런 이적행위가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은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반대로 세종은 조선의 자주성을 위해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강행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그려지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자 그 자체의 권력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실제 역사에는 기록될 수 없었던, 하지만 충분히 있었을 법한 가능성으로서의 역사이며 이 작품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이다. 문자의 발명 이후에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문자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축적과 전달, 그리고 계승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정보의 독점과 통제를 통한 문자의 권력이 발생한다. 특히 한자처럼 어려운 문자일수록 문자를 아는 이들은 더 많은 정보를 독점할 수 있게 되면서 특권을 지니게 된다.

작품 안에서는 이러한 문자의 권력과 한글의 정치성이 역사적 인물 세종의 현재적 재해석과 연동되어 나타난다. 아버지 태종과 다르게 조화와 소통의 정치를 추구하고자 한 세종은 국가의 근본이

백성이라고 인식,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인다. 기실 세종의 모든 치적은 전문 분야이면서도 백성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들이었다. 이를 <뿌리 깊은 나무>는 트라우마로 인해 민본주의적 정책을 펴게 된 세종의 업적으로 재해석한다.

수십 년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음에도 세종은 불만족스러운 상태인데, 이것이 극대화되는 것이 역병 사건이다. 어느 지역에 역병이 돌아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자 세종은 그곳에 찾아가 백성들에게 묻는다. 역병이 돌고 있으니 지역을 떠나라는 관청의 포고문을 보지 못했느냐고. 하지만 백성들은 세종에게 글을 읽을 수 없으니 몰랐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세종은 문자를 배우는 데에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묻고, 백성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는데 언제 그 많은 한자를 외우냐고 답한다.

이 사건이 세종이 한글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백성이 문자를 몰라서 생존을 위한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폐한 삶이 반복된다는 점, 또한 그런 무지한 백성을 상대로 문자를 아는 특권층이 전횡을 일삼는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즉 세종이 문자를 만든 것은 특권층만이 누리고 있던 권력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그들의 안락한 삶을 백성에게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백성이 문자를 알고 그로부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보다 폭넓은 소통이 가능하리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는 유학자가 국가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정기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두 사람이 각자의 정치사상으로 대립하는 19회의 토론 장면은 한글의 정치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정기준은 세종의 의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문자의 발명, 정보의 공개와 분배가 가져올 파국에 대해서 경고한다. 문자를 알게 된 백성은 생각을 표현하는 재미를 알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생업에 소홀해질 것이며 또한 위정자들은 오히려 문자를 악용해 백성을 더욱 착취할 것이고 지혜가 생긴 백성들 사이에서의 반목으로 인해 더욱 백성의 삶이 피폐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두 사람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는 없다. 작품 말미에서 세종과 정기준은 이제 모든 것은 문자를 알게 된 백성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결말을 통해 문자의 권력과 한글의 정치성은 현재적 의미로 확장된다. 세종이 구상했듯이 21세기 한국사회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현실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정기준이 우려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세종과 정기준이 한글을 통해 국가란, 지도자란, 그리고 정치란 무엇인가 대해서 토론했듯이 확정되지 않는 결말을 통해 그 질문을 시청자 스스로에게 돌린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뿌리 깊은 나무>가 한글이라는 문자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

이상으로 의미 있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한 이유이다. 정보를 축으로 한 문자의 권력을 그린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인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드라마로서 그것을 현재 한국사회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기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 작품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한국 문화 학습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차적으로 극적으로 재현된 한글의 창제와 반포 과정을 통해 한글이라는 문자의 특성과 가치를 배울 수 있다. 한글의 과학성은 지도자의 애민정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그 안에는 모든 사람들과 상생하고자 하는 평화와 소통의 취지가 담겨 있다. 나아가 현재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한글의 정치성을 통해 현재 한국사회를 외부인의 관점에서 보다 비판적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던졌던 질문들은 현재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질문들이 어째서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을 때 한국의 문화적 특성과 한국인의 가치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3. <뿌리 깊은 나무>에 그려진 한국의 전통문화

<뿌리 깊은 나무>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다양한 고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15세기 조선의 문화를 세밀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또한 당시의 문화를 실제 있었던 그대로 재연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극적 갈등의 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전달과 재미 유발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공간, 생활,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간

① 집현전(集賢殿)

집현전은 조선 초기 궁중에 설립된 전문 학문 연구 기관이다. 세종 2년 1420년 설립되어 세조 2년 1456년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혁파되었다. 전임 학자의 수는 시기에 따라 10명에서 30여 명으로 달랐고, 이들은 나이 어린 문관들로 구성되었다. 초기에는 학문 연구 기관 및 왕의 자문 기구로서의 기능에 국한되었으나, 이후에는 관직을 맡는 등 정치적 역할도 담당했다. 조선 초기 정치.제도.문화를 확립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작가의 허구적 상상력이 추가되었다. 이 작품에서 집현전은 세종이 자신의 통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왕권강화를 위해 외척 및 공신들을 숙청했던 아버지 태종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 세종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화의 정치를 지향하게 되었다. 또한 보수적인 성향의 대신들에 대항하고자 세종은 학문과 지식을 갖춘 집현전 젊은 학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자신의 친위대로 삼는다. 집현전 학자들은 경연을 통해 세종의 개혁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이들 중에는 한글을 창제하는 데에 기여를 한 이도 있다.

하지만 모든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 창제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부제학이었던 최만리이다. 실제로 그는 한글 창제에 반대하며 세종과 가장 심하게 대립했던 인물로 작품 안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그려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정인지, 박팽년, 성삼문 등 초기 집현전을 이끌었던 실존 인물들을 비밀조직인 천지계원으로 설정, 집현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글 창제와 반포의 과정을 사실적이면서도 허구적으로 그려냈다.

② 반촌(泮村)

조선시대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에서 설치한 국립대학교격의 교육기관을 ‘성균관’(成均館)이라고 하는데, 그 별칭이 반궁(泮宮)이었다. 반촌은 이 성균관 주변의 마을로 현재 서울의 종로구 명륜동이 그곳이었다. 태종 시기 성균관에 토지와 노비가 하사되었는데, 이들이 지리적으로 편한 성균관 주변에 살게 되면서 반촌이 형성되었다. 반촌의 사람들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을

보필하는 동시에 각자 자신의 생업을 하며 살았다. 또한 이곳은 조선의 정신적 토대인 유학(儒學)의 성지(聖地)로서 공권력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의 반촌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숨겨진 비밀이 존재하는 곳으로 재해석되었다. 이 작품에서 반촌은 세종에 대항하는 비밀조직 '밀본'의 근거지다. 밀본의 리더인 정기준이 백정 가리온으로 위장해 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조직원들이 정체를 감춘 채 노비로 살고 있다. 이들은 밀본의 수사를 위해 관군이 반촌에 들어오려 하면 몸으로 막아서는 등 치위법권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 창제 및 반포를 둘러싼 세종과 정기준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집현전이 세종이 추구하는 정치 철학을 상징한다면 반촌은 정기준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의 정신적 근간인 성균관, 그런데 그 성균관 유생들을 보필하는 반촌의 사람들이 사실은 왕과 대립하는 밀본원이었다는 반전과 아이러니를 통해 극적 재미와 긴장감을 일으켰다.

2) 생활

① 왕(王)

주지하듯 왕은 가장 높은 신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조선의 왕에게는 수많은 제약과 책임이 뒤따랐다. 조선은 봉건국가이기는 해도 대신들의 권한이 작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많은 정책들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웠고, 왕의 모든 행동은 유학의 도리에서 벗어남이 없어야 했다. 또한 왕의 모든 행동에는 내시와 궁녀 등의 수행원들이 항상 동행했고, 일거수일투족은 빠짐없이 사관에 의해 기록되었다.

조선시대 왕의 이러한 실상은 <뿌리 깊은 나무>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졌다. 이 작품은 세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그림과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했던 왕으로서의 책임의 중압감을 강조한다. 궁을 산책할 때에도 뒤를 따르는 수많은 수행원들, 말 한마디도 예법에 맞게 해야 하는 위치, 자식을 잃은 개인적인 고통도 감내해야 하는 상황 등이 그것이다.

무엇보다 <뿌리 깊은 나무>의 세종은 한국의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자 천재라는 일반적 평가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재현된다. 작가는 그의 믿기 어려운 많은 업적에 상상력을 덧붙여 트라우마를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세종을 재해석했다. 너무나도 강력한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자신이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열패감에 빠졌던 세종은 평생 그것을 극복하고자 살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물이 한글이었다. 그에게 한글은 백성과 권력을 나누는 것이자 아버지에게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이렇듯 화려한

생활의 이면에 있었던 왕의 고충을 극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② 백정(白丁)

백정은 소나 돼지 등을 도축해 고기를 공급하는 일을 하는 천민으로, 신분제 조선사회의 최하위 계층이다. 계층으로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백정은 유교 문화권인 조선에서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하기 때문에 천시되는 직업이었다. 반촌에 백정이 많았던 것은 국가적으로 성균관 유생들에게 고기를 많이 제공하려는 배려 때문이었고, 현실적으로도 각종 제사에 쓰일 고기가 자주 필요했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세종의 라이벌인 정기준이 백정으로 위장해서 등장한다. 본래 양반이었던 정기준은 가문이 몰락한 후 정체를 숨기고자 가장 천한 계층인 백정으로 위장해 살아간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기 위해 인체를 해부하고자 하고, 동물을 해체하는 데에 능한 백정 정기준의 도움을 받는다. 정기준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글을 만드는 데에 일조한 셈이 된다.

신분제 사회의 양극단에 있는 왕과 백정, 세종과 정기준이 토론하는 장면, 마지막 순간 왕의 자리에 앉아 숨을 거두는 정기준의 모습 등 <뿌리 깊은 나무>는 신분제 사회의 계층적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한편 그것을 몽타주처럼 대비시킴으로써 더 큰 재미를 느끼게 한

작품이다.

3) 제도

① 경연(經筵)

중국에서 시작되어 고려 후반 도입된 제도로, 왕과 대신들이 각종 사안에 대해 유학의 논리로 토론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유학 경전을 가르친다는 표면적인 목적과 전제왕권의 사적인 행사를 견제하려는 실질적 목적이 있다. 왕은 유학 원리를 바탕으로 한 대신들의 지적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경연은 왕에게 부여된 무거운 부담 중 하나였다. 기록에 따르면 국가 정책은 물론이고 역사, 철학, 생활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주제가 경연에 부쳐졌다고 한다. 세종은 실제로 가장 많은 경연을 한 왕이다. 재위 32년 동안 1898회의 경연을 했고, 이는 평균적으로 1달에 5회를 실시한 셈이다. 또한 대신들이 왕과 독대하는 ‘운대’라는 시간을 마련해서 이때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 문제 삼지 않기도 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세종이 경연을 하는 장면은 반복적으로 그려진다. 이때 세종의 양옆으로 대신들과 집현전 학자들이 나누어 앉아 각각 세종을 견제하거나 협조하는 역할을 한다. 실제 역사에서처럼 세종은 이들과 평등한 입장에서 소통하면서도 전문 학자 이상의 논리로 토론에 임하며, 특히 한글 창제와 관련해서는

대신들을 설득하고자 여러 번 경연을 개최한다. 이 작품에서 경연은 실제 역사의 재현이기도 하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조화의 정치를 지향하게 된 세종의 완벽주의적 성격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② 과거(科擧) 시험

중국에서 시작되어 고려 초기 도입되었으나 이후 유명무실해졌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다시 자리를 잡은, 시험을 치러서 관리를 뽑는 제도이다. 크게 문과, 무과, 잡과로 나뉘지만 유교 국가로서 핵심은 문과 시험이었다.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시험과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시험이 있었다. 과거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지만, 문과 시험에는 서얼, 재가한 여자의 아들 등의 제한이 있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과거 시험을 하나의 극적 장치로 활용한다. 고려가 무너지면서 많은 인재들이 등을 돌리자 태종은 새로운 인재 수급을 위해 과거 시험을 시행한다. 이때 그가 숙청한 정도전의 조카인 정기준이 과거 시험장에서 태종을 조롱하는 답안을 제출하고, 이로 인해 정기준 일가가 몰살당한다. 또한 세종과 마주친 정기준은 그의 나약함을 비웃고, 이것은 세종의 또 다른 트라우마가 된다. 정기준에게도 어린 시절의 치기어린 행동으로 인해 멸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후회로 남는다.

과거 시험은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을 지향한 세종의 진취적인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모든 극적 갈등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으로 기능한다. 세종과 정기준의 오랜 대립은 과거 시험에서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곧 두 사람이 양극단에 위치한 인물이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거울과도 같은 관계임을 뜻한다.

4. 나가며

텔레비전 역사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 창제와 반포 과정을 극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이 작품이 외국인 학습자에게 유용한 교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측면 때문이다. 첫째,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가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전통문화를 발굴한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작품 안에서 중요한 극적 요소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둘째, 한국어의 문자 체계인 한글의 다양한 특성과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한글의 창작 원리와 특성을 극적인 이야기와 결합해 보여줌으로써 이해의 용이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문자의 정치적 측면을 현재적으로 재해석해 현재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도 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말을 배운다는 것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언어에는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체계가 반영되고, 그로 인해 구체적인 문화가 형성된다. 이러한 순환적인 관계를 고려했을 때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텔레비전드라마의 외국인 대상 교육의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텔레비전드라마는 극적인 재미를 통해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글에서 논한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밀도 있는 극적 갈등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보다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한국 고유의 문화와 한국어/한글의 여러 특성들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텔레비전드라마는 비교적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모델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